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전하는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이현규님

합격수기

안녕하십니까. 제31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이현규입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한 사항들을 저의 수기를 읽으시는 분들께 최대한 진실되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글이 꽤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저의 진심이 합격수기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하 가독성을 위해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합격자 발표 시간인 9시가 다가오자 컴퓨터를 켜다. 혹시나 합격을 한다면 그 감격의 순간을 그저 기쁜 추억으로만 남기기보다 생생히 간직하고자, 왼손에 휴대폰을 쥔 채 동영상을 촬영하며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였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합격을 하였을 때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종종 상상하였는데 그 상상 속의 모습이 실제 장면으로 남기는 데에는整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수험기간도 긴 편이고, 그렇다고 엄청 고득점을 받은 것도 아니기에 과연 내가 합격 수기를 쓸 자격이 있는 것인지, 또한 이 글을 읽으시는 수험생 분들께 괜히 혼란을 끼치지 않는지 매우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나 역시도 선배 관세사님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며 합격에 대한 의지를 굳힐 수 있었고, 짧지 않은 수험기간 때문에 수험생 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감히 펜을 들었다.

II. 수험생활

위에서 언급했듯 나는 4년차 합격생으로 수험생활이 꽤나 길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제발 나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지만 반대로 여차하면 금방인 것이 4년차 수험생이다. 관세사 시험 준비를 결정하는 시점에서부터 합격의 시점까지 나의 수험생활을 숨김없이 소개하고자 한다.

1. 관세사 시험 준비를 마음먹기까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적어도 2년차 유예를 떨어지고 다시 공부할 것을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2009년 2월에 전역을 하고, 정신없이 1년을 놀았다. 슬슬 앞으로 진로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고 호기심에 수강하였던 무역학과 수업에서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부모님 역시 내가 기업체 취업보다는 공무원 또는 전문직 직장을 가지길 원하였고, 나 역시도 관세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다만, 다들 생각하듯 혹시나 시험에 실패했을 때의 위험 부담을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

시험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만 거의 5개월, 결국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굳혔다. 마음 바뀌기 전에 바로 7월 1차 종합반 개강을 등록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2. 1차 시험일 까지 (첫번째 1차 시험)

결과부터 말하면 1차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의 나의 모습은 수험기간

중 가장 한심해보였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수험생의 모습의 표본이었던 것 같다.

7월, 8월 동안 사당에 있는 학원에서 1차 종합반을 수강하였다. 종합반 수업을 들으면서도 귀가 얇아져서 ‘아 저 강의도 들어볼까’ 하며 또 다른 강의도 신청해서 들었다. 간단히 말해 학원 강의와 개인적인 복습이 병행되어야 하는 공부가 나는 오로지 강의에만 의존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나의 실수였다.

9월에는 다시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할 생각에 대전으로 왔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내게는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유혹을 나는 전혀 이기지 못했다. ‘대전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나는 무리다’ 라는 결정을 하고 다시 학교를 휴학하고 서울에 올라오기 까지 두 달은 흔히 말하는 “날린 기간” 이다.

11월에 다시 서울에 올라갔다. 여건 상 강의비, 생활비 등 경제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독서실 충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였다. ‘나름’ 열심히 하였지만 1월 첫 학원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매우 충격을 받았다. 점수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는 점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모의고사 충격에 이려다가 1차 시험부터 떨어지겠다는 걱정을 하며 내가 내린 결정은 한심하게도 ‘공부하는 장소를 옮겨보자’ 였다. 이것이 두 번째 나의 실수다. 그렇게 나는 산속고시원에 들어가 남은 3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였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인지 1차 시험은 넉넉한 점수로 합격 하였지만 이쪽저쪽 쓸데없이 공부장소를 옮겨 다닌 행동들은 참 어리석었던 것 같다.

3. 1차 시험 합격 후부터 2차 시험까지 (첫번째 유예 2차시험)

1차 시험을 합격하였을 때 세상 다가진 것처럼 기뻐다. 평소에 관심도 없던 날씨가져도 너무 좋고, 온 세상이 행복 그 자체였다. 2차 시험은 금방이라도 합격할 것 같았다.

나는 1차 준비를 할 때에 2차 공부는 건드려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4월부터 6월까지의 그제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느라 정신없었다. 당연히 1년차 동차 시기의 2차 시험은 그제 분위기만 살피며 앉아 있다가 내년 합격을 다짐하며 나왔다.

7월이 되어 또 다시 서울에 올라가 방을 잡고 사당, 광화문에 있었던 학원과, 당시 노량진에 있었던 학원에서 2차 대비 기본 강의 및 심화강의 까지 모두 수강하였고, 1주일에 한 번씩 스테디도 하였다.

1월이 되어 모의고사 반이 시작되었고, 모의고사를 치루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다. 특히 모의고사 시작한 직후인 1월과 2월은 진짜 지독하게 열심히 하였다 생각한다. 모의고사 성적도 꽤 만족스러웠기에 더 힘이 생겼던 것 같다. 물론 중간 중간 슬럼프가 오던 시기는 존재하였다.

4. 2차 시험의 날

2년도 넘은 일이기에 시험 전날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다만 HS는 평소 소홀히 했던 통칙을 열심히 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2교시 HS 50점 문제가 통칙이었기에 너무나도 생생하다.

무역실무 1번 50점 문제가 선적에 관한 문제로 전혀 예상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했던 부분이어서, 억지로 억지로 써나가기 했지만 합격자 발표 전까지 무역실무는 내가 당시 느끼기에 가장 합격에 문제가 되는 과목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역실무가 과락이라는 생각이 들어 불합격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하였다.

5. 최종 발표일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종 발표 전날, 밤을 지새우며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불합격이었지만, 걱정하였던 무역실무가 아닌 관세평가 과락으로 인한 불합격이었다. 관세법 71점, HS 46점, 관세평가 37점, 무역실무 50점이었다. 물론 불합격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어도, 관세평가는 솔직히 꽤 잘 봤다고 생각하여 걱정하던 과목은 아니었기에 과락은 너무나 충격이 컸다. '관세평가 과락' 은 이후 4년차 공부할 때 까지도 가장 무섭고 걱정되는 켄리였다.

6. 2년차 유예 불합격 이후

2년차 유예에 불합격을 하니 정말 막막하였다. 다시 1차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여야 할지, 학교는 어떻게 다닐지, 정말 막막 그 자체였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도전하자는 결정을 내렸고, 외계 강의도 신청하고, 관세평가 강의도 새로 신청해서 강의라도 들으면서 다시 공부를 하고자 애를 썼다. 하지만, 아무리 집중

하려해도 공부가 되지 않았고,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관세사 공부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불합격으로 인한 충격 외에도, 개인적인 문제가 겹겹이 쌓여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다고 노는 것도 아닌 정말 절망의 시기를 보냈다.

시간이 흐르니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취업 준비라도 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쓰는 연습도 해보고, 면접 연습도 하였지만 그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도 관세사 시험에 대한 미련이 조금은 남아있었던 탓인지 다시 시험 접수는 한 상태였고, 접수만 하고 더 이상의 관세사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다. 시험 날이 다가오자 ‘당연히 합격은 못하겠지만 이번 시험을 끝으로 관세사 시험에 대한 미련이라도 없애보자’ 는 마음으로 다시 두 번째 1차 시험을 쳤다.

예전에 1차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놓았었던 이유인지, 2차 공부를 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외계 40점, 내국소비세법 42.5점, 평균 정확히 60점으로 1차 시험을 딱하니 합격을 해버렸다. 지난 1차 시험 합격했을 때처럼 기쁘지도 않았고, 신이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합격을 하였음에도 이 지겨운 공부를 진짜 또 해야하나 하는 걱정에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그냥 그런 마음 그대로 흐르다보니 3년차 동차 때의 2차 시험은 그렇게 또 지나가 버렸다.

1년차 동차 때의 2차 시험과는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정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앉아 있다가 왔고, 3년차 동차 때의 2차 시험은 문제를 보면 뭘지는 아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아 쓸 수가 없어서 고적이다가 온 것이다.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시간을 흘러 보내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4년차 합격을 노리고 있는 수험생이 되어있었다. 처음 공부할 때 장수생이 되지 말아야지 했지만, 장수생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몸소 느끼는 시기였다. 9월이 되어서야 관세평가와 무역실무를 위주로 인강도 신청하고 관세사 공부를 하는 후배들과 으쌰하며 다시 공부를 하고자 하였으나 학교 수업과 병행 등으로 효율은 매우 떨어졌다.

7. 2014년 마지막 6개월

다시 휴학을 하고 마지막 남은 6개월을 불사질러보고자,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신동생과, 관세사 공부를 하는 학교 동아리 후배 (이번에 31기 동기로 함께 합격한 조동혁 관세사) 와 다시 노량진에 방을 잡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절대적인 공부양은 2년차 유예 때보다 훨씬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매우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말해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비중을 잘 조절하여 공부하였던 것 같다. 모든 공부가 그렇듯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8. 마지막 관세사 2차 시험

2년차 유예 때 2차 시험에 비하면 기억이 매우 잘나므로 조금 자세하게 써보고자 한다.

나는 마지막 13일을 남기고 시험 전 날까지 3회독 계획을 세웠다.

우선 5일로 나누어 1회독을 하였다. 그리고 3일로 나누어 1회독을 두 번 하였다. 이때까지는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하였다. 남은 이틀 동안은 개인적 판단 하에 조금 비중이 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 1회독을 하였다.

중요한 순간을 앞둔 만큼 긴장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험 전 마지막 3회독을 확실하게 하고나니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있었고 전날 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1교시 관세법 (67.5점)

1번 문제 가산세, 가산금, 과징금이 50점 짜리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관세법은 항상 자신이 있었던 과목인지라 준비가 잘 되어있었고 당황하지 않고 써나갔다. 다만, 50점짜리 문제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 나머지 10점짜리 문제를 시간 압박에 쫓겨 매우 조급하게 썼다. 답안지를 하나 더 받아서 약 17페이지정도를 썼다.

시험을 치고 나서 관세법에 대해 느낀 점은 아 혹시 50점짜리 문제에서 숫자를 착각하여 잘못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은 들었으나 그래도 관세법은 꽤 만족스럽다는 생각이었다.

이번 50점 문제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답안 목차 구성을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I.부과대상 II.부과절차 등을 대목차로 잡고 그 세부 목차로 1.가산세 2.가산금 3.과징금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나, 본인은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단순히 평소 준비하였던 대로 I.가산세 II.가산금 III.과징금을 대목차로 나누어 1. 부과대상 2.부과절차 등 요구사항을 세부 목차로 나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출제자가 요구한 의도를 벗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점수

를 봤을 때에는 **답안 목차 구성보다는 요구한 사항이 빠지지 않고 정확히 작성**되어있으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2교시 HS (56.5점)

문제를 훑어보니 한 문제 내에서도 정확히 쓸 수 있는 것과 (주와 호의용어) 아예 모르는 질문 (해설서 내용) 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남들도 모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당황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설서 내용을 많이 못쓰다보니 시간적 여유도 생겼다. 주와 호의용어는 거의 정확하게 썼고, 해설서 내용은 어떻게든 지어내서라도 썼다. 시간적 여유도 있다보니 10점짜리 문제에서도 개요에 최대한 관련 내용을 많이 적어가며 알고 있는 지식을 쏟아 부었다. 답안은 12쪽을 조금 넘게 썼다.

시험을 치고 나서 HS에 대해 느낀 점은 위에서 언급한 분위기와는 달리 쇼크였다. 이번 HS 문제에서는 “몇 부 주 몇, 몇 류 주 몇”에 대해 쓰라는 형태의 문제가 많았는데 50점짜리 문제에서 84류 주를 16부 주로 착각을 한 것이다. 안 그래도 해설서 내용을 잘 쓰지 못하였는데 법적인 사항 마저, 특히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 내용이 완전 흐트러졌다는 생각에 과락에 대한 걱정까지는 아니었지만 점수를 많이 깎아 먹겠다는 생각에 많은 걱정을 하였다.

3교시 관세평가 (46점)

수험생활 내내 가장 걱정하고 가장 무서운 시간이었다. 한 번 과락의 경험이 있었기에 시험 전부터 두려웠다. 이 두려움은 시험지를 받고 나서도 이어졌다. 50점짜리 문제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10점짜리 문제도 한 두 문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다. 글을 쓰면서도 맘이 삐질삐질 울렸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든 과락을 면하자는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써나갔는데, 사실 3교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시험 후 관세평가에 대해 느낀 점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제발 과락만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뿐이었다.

4교시 무역실무 (60점)

50점 짜리 문제가 D/P, D/P Usance, D/A 같은 개인적으로 평이한 문제가 나와줘서 최대한 글씨도 신경 쓰고 논리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모의고사 때 협약이 나오면

당황하곤 하였는데 다행히 이번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아 운이 따라줬다. 10점짜리 문제에서는 약간 소홀히 여겼던 부분들이 나와서 약간 내 답안에 만족을 하지는 못했다.

시험이 끝나고 무역실무에 대해 느낀 점은 50점짜리에서 높은 점수 획득하지 못하면 불안하다는 느낌이었다. 대외, 외환에서 많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았고, 나머지 10점짜리가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비교적 평이하게 느낀 50점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주어야 했다. 결과적으로는 50점 문제에서 그래도 괜찮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III. 공부방법

수험생 개개인 마다 공부 방법에 차이가 있고, 자기에 맞는 강사님들이 있기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중다, 나쁘다 할 수는 없다. 자기에 효율적이지 않는 방법을 남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니 끝까지 고수하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과목별로 자신에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1. 1차시험

1차 시험은 공부 방법보다는 간략하게 내가 들었던 강의와 강사님들을 소개하고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넘어가려 한다.

- 관세법 - 오철환 관세사님 기본강의, 이00 관세사님 문제풀이 및 FTA 특례법 강의
- 내국소비세법 - 황00 관세사님 기본강의 및 문제풀이
- 무역영어 - 김용원 관세사님 기본강의, 신00관세사님 문제풀이
- 회계학 - 전00 회계사님 기본강의, 문제풀이 강의, 단기특강, 최종모의고사

우선, 1차 공부에 있어 **자기가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 믿으라**는 것이다. 1차 시험 준비를 할 시기에는 모두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낯설고, 자신이 아직 초보 수험생이라는 생각에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경우가 많다. 자신을 믿고 불안함에 사로잡혀 슬럼프가 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또한, **회계학에 확실히 투자**했으면 한다. 1차 불합격자를 보면 평균보다는 회계

과락으로 불합격하는 사람을 많이 본 것 같다. 어느 과목이든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지만, 우리 시험 특성상 외계를 확실히 해두어야 다른 과목 공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시간이 없다고 원가외계를 통째로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가를 버리고서는 과락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2월 정도까지 외계보다는 무역영어가 제일 어려웠다. 한국말로 된 협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영어로 해야 하니 문제를 풀어도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랐다. 나는 문제를 풀어가며 무역영어에 대한 감을 찾아나갔는데 2차 무역실무가 선행되었더라면 한결 쉽게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2. 2차시험

<관세법>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기본반, 심화반, 최종정리반을 수강하였다.

첫째, 개인적으로 관세법에 있어서 **법령의 체계에 대한 숙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장-, -절-, -관-, -조- 등의 체계를 숙지하였는데 이것은 이 후 답안을 구성할 때 목차를 떠올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고, 문제를 분석할 때에도 논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역지로 이것을 암기하려하기 보다는 처음 한번만 외워보고 관세법 공부 시 항상 법령집을 함께 펴놓고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다.

둘째, 목차노트이다. **문제를 보고 목차만 구성이 되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나는 목차노트를 만들고 또 따로 그 목차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하여 모았더니 한 권의 나만의 책이 만들어져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였다. 이는 4년차이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라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목차노트 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셋째, 법령의 취지, 의의, 도입배경, 효용 등 **법조문 외적인 내용들의 중요성**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험생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함으로써 관세법을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올해 시험의 경우에는 원산지 입법목적, 분할납부제도 입법취지, 비교문제, 법조항간 관계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미리 대비되어있지 않으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이다. 법조문만으로 과연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는 기본 전제**로 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HS>

조현희 관세사님의 기본반, 심화반을 수강하였다.

관세사 시험의 핵과 같은 존재이자, 처음 2차 공부를 하는 수험생에게 가장 충격을 주는 과목이다. 나 역시도 처음 강의를 들을 때 도무지 관세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들었다. 기본강의를 완강하고 한번 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이 많은 주와 호를 모두 외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절망 그 자체였다. 말도 안 된다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가장 공부하기 편한 과목이 되어있다.

첫째, 개인적으로 **HS만큼은 암기식을 사용**하였다. 단순하고 유지하기는 하지만, 암기식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암기식조차 외우기 어려운 우스운 일도 발생하지만 그래도 본인에게는 HS는 암기식 공부방법이 맞았다. 3년차 때 약 1년의 공백기가 있던 후 4년차에 다시 HS를 공부할 때에도 암기식만큼은 입에 달라 붙어있었다.

둘째, **말하면서 공부**하였다. 말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익숙해져 외우는데 주를 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해설서 내용을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법령집 빈 공간에 중요한 해설서 내용을 적어두어** 법령집 따로 해설서 따로 보다는 주와 호의 용어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설서 내용은 눈에 익히도록 하였다.

<관세평가>

2년차 때에는 김00 관세사님의 기본강의, 심화강의를 수강하였고, 3년차에 정00 관세사님의 기본강의, 4년차에 김병수 관세사님의 기본강의, 심화강의를 수강하였다.

관세평가 과락이 난 경험이 있고, 이번 시험에서도 점수가 좋지 않아 공부방법을 짚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하지만 2년차 경우 과락의 원인 및 올해의 저득점의 원인과 그나마 과락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개인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속에서 느낀 관세평가 공부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느낀 점을 적어보겠다.

우선 2년차 때의 경우 과락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공부 내용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2년차 시험 때의 경우 법, 시행령과 일부 규칙에만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하였고, 공부 역시 그것을 위주로 하였다. 고시, 협정은 아예 등한시 하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나 싶다.

둘째, 위와 어쩌면 동일한 맥락이지만 절대적인 공부량 또한 매우 부족하였다.

당시 관세평가는 공부할 양이 매우 적다는 생각에, 일주일에 하루 많게는 이틀 정도만 몇 시간씩 투자한 것이 전부였다.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만한 생각이 아주 독이 되었던 것 같다.

셋째, 2년차의 실패를 보완하려 애썼음에도 올해 저득점이 난 원인은 너무 얇게 알지 않았나 싶다. 공부 방식을 바꾸려 애썼으나 기존의 공부 방식이 많이 남아 있어 아직도 얇게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라.

넷째, 협정을 공부할 경우 **협정 내용을 하나의 사례로 여기고 마치 사례를 공부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협정에서 말하는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뭐 당연한 내용을 분석이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적어 보았는데 추가적으로 언급 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수험생들께서 “주해 몇, 예해 몇 권고의견 몇 등 이런 것까지 외워야 하나요” 하고 묻고는 한다. 본인 역시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점수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또한 법, 고시 내용과 협정 내용이 동일하여 중복되는 경우에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경우 본인은 법적인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고 외우되 ‘협정에서도 어디어디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으며 실제 답안 작성시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무역실무>

최권수 관세사님 기본이론, 정00 관세사님 기본이론, 심화강의, 박병호 관세사님 기본이론, 심화이론 강의를 수강하였다.

나는 2차 공부를 할 때 무역실무의 공부방법이 가장 골칫거리였다. 양은 너무

나도 방대한데 어떻게 공부해야할지를 모르겠고, 공부를 하더라도 머리에 들어 오지 않는 기분, 공부를 하고나서도 이게 공부를 한 것인지 하는 기분이 들었다.

첫째, 나는 **3대 협약만큼은 나한테 맞게 따로 정리**를 하였다. 그렇다고 어느 내용을 줄이거나 생략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단지 내가 외우기 쉽게 목차를 달고 이해와 암기가 편하게 정리를 하는 수준이었다. 협약을 정리해보고, 또 그 정리 과정 속에서 나에게 맞게 수정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외워진 것 같다.

둘째, **키워드 중심 공부**이다. 무역실무의 경우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또한 반대로 다른 과목들처럼 심각하게 외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키워드를 체크해가며 공부를 하다보니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도 키워드 위주로 문장이 매끄럽게 만들어 졌다.

셋째, 목차를 꼼꼼이 체크하였다. 무역실무를 공부하다보면 목차가 통일되어 있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정기용선 항해용선 나용선에 대한 설명의 목차가 동일하듯) 이러한 **목차를 체크하고 통일화시켜나가며 공부**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넷째, 논리적이고 매끄러운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과목이든 그렇겠지만 특히나 무역실무의 경우 딱히 다른 과목들처럼 법적 조문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과목이라 보기 어렵고, 흔히 말하는 ‘뺨을 많이 푸는 과목’이다. 이 경우 **정확한 답안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술술 읽히도록 써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어쩌면 공부방법보다는 답안 작성의 스킬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IV.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

1. 짜투리 과목

흔히 수험생들 사이에서 표현하는 짜투리 과목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점수를 얻기에 오이려 더 좋을 수 있다. 본인의 경우 각 주제별로 10점 분량에 맞게 정리를 해놓고 정리한 위주로 공부를 하였다.

<환급특례법>

당연히 관세법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여야하는 것이 맞지만, 혹시나 소홀히 하였다면 아무리 늦어도 11월 부터는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의고사 들어가서 해야지 하면 늦어도 한참 늦다. 모의고사 범위 따라가기도 벅찬데 그때 새로운 공부를 할 수는 없다. 전체에서 적게는 10점, 많게는 20점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이 역시도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포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자그마치 20점으로 전체 1/5를 차지하는데 이를 포기해서는 과락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모의고사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여야한다. 고시 규정의 경우 워낙 양이 방대하므로 모두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몇몇 중요한 내용의 고시 내용은 어느 정도 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나의 경우 2년차 유예 시험 때에도, 4년차 유예 시험 때에도 외국환거래법이 공부할 때 전혀 보지 못했던 고시 규정이 나왔다. 그래도 1점에서 2점이라도 받고자, 모의고사 때부터 공부하지 못한 고시 규정이 나왔을 경우 써야할 문장을 대비해두었다. 시험에서 역시 그 대비한 문장을 적어 최소 점수라도 받고자 하였다.

<상품학>

최근 기출 동향 상 상품학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있다. 주와 호의용어 외우기도 힘든데 사실 상품학을 따로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나는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상품학을 요약하며 정리해두었다가 모의고사 첫 주차 때 딱 한번 보고 그 이후로는 사실 따로 공부한 적은 없다.

2. 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운도 따라 주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다. 나 역시 2년차 때 아침에 HS 통칙만 죽어라 외웠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50점 문제가 통칙이 나왔던 경험이 있고, 그 외에도 쉬는 시간에 본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번 시험 역시도 쉬는 간에 본 문제들이 나온 경우도 있다. 본인에게 엄청난 운이 따르기만을 빌자.

3. 건강관리

시험 합격을 떠나서 건강은 일순위다. 공부를 하면서도 건강은 꼭 챙겨야 한다. 평소 허약한 체질이 아닌 나는 시험 두달 전에 심하게 체를 해서 하루를 고생한 적이 있고, 이번 시험의 경우 시험 이틀 전부터 심한 감기몸살로 시험 전날 링겔을 맞기도 하였다. 백날 건강하다가 시험 당일 날 아프면 큰일이니 평소부터 건강 챙기자. 적어도 수험생활 만큼이라도 몸에 좋은 음식 먹는 것에 돈 아끼지 말자.

4. 전자기기

휴대폰 만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독서실 신발장에 신발과 함께 폰을 두고 열람실에 들어갔는데도 다시 폰을 가지러 나간 경험, 스마트폰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2G폰으로 교체하고도 쓸데없이 환경설정이나 사진도 없는 사진첩 같은 곳에 괜히 들어가 보는 경험 등 전자기기 중독은 끝도 없었다. 자신이 제어할 수 안 된다면 '공부할 때 꺼야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두고 가자.

5. 슬럼프

누구든 슬럼프는 온다. 특히나 멘탈이 약한 사람에게 슬럼프는 치명적이다. 나는 슬럼프가 올 때 그냥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친구들을 만나며 폭 쉬고 왔다. 솔직히 쉬면서도 짹짹한 마음에 쉬는게 쉬는게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쉬고 오면 슬럼프 극복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 또 같이 공부하는 동생과 산책을 하기도 하였는데, 생각해보면 슬럼프를 혼자 극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극복하는게 나에게 맞았던 것 같다. 자기만의 슬럼프 극복 방식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싶다.

6. 생활패턴

사람마다 모두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일찍 자든 늦게 자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야 그날 공부가 잘 되었다. 여차하여 늦잠이라도 자면 충분한 수면에도 불구하고 그날 공부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또한 낮잠 20분 저녁 잠 20분은 억지로 쉰 것은 아니고 항상 같은 시간대에 즐려서 참지 않고 잤던 것으로 기억한다.

7. 공부시간

절대적인 공부의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부가 정말 잘 되는 날에는 하루 16시간을 한 경우도 한 두 번 있고, 공부가 안 되는 날에는 단 1분도 책을 안본 날도 많지만, 보통 공부를 하면 순수 하루 10시간 정도를 하였고, 시험 한 두 달 앞두고는 12시간 정도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8. 스터디

내 성격 상 스터디는 꼭 필요한 사항이었고, 지금도 함께 공부한 스터디원들은 내 관세사 수험 생활에 있어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스터디는 지극히 개인 차이라 생각 한다. 자기가 도저히 혼자 외로워서 공부가 안 되고, 일주일에 한번쯤은 스터디에 시간을 할애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부한 것을 체크해보는 것이 맞다 생각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혼자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해도 된다. 스터디를 전혀 하지 않고 합격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V. 마무리하며

오랜 수험기간이 있었던 만큼 수기를 쓰다 보니 어찌나 하고 싶은 말도 많은지 글이 길어진 것에 대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긴 글을 마무리까지 읽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수험생활 도중 먼저 합격하신 선배님들의 합격수기를 보며 나는 언제 합격수기를 쓸 기회가 생길까 하고 부러워하곤 했었는데,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생겼네요. 몇 번의 불합격으로 인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했던 수험기간 보다 상당히 길어져서 압박감도 말도 못했고, 좌절감도 심했는데 이 힘든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끝내 관세사 시험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낸 저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주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니 공부를 하는 동안 고모, 이모를 비롯한 친척분들과 친구들, 선배님들, 후배들, 스터디원, 교수님들, 관세사님들 등 저의 합격을 기원하며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을 위해, 피곤함과 외로움을 꼭꼭 삼아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힘든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불행한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과 열정이 관세사라는 꿈을 지속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으로 첫 스타트를 기분 좋게 끊어준 내 동생 상규 항상 정말 고맙고, 28년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키워주시고 드디어 올해 두 아들의 합격 소식을 만끽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저의 생일 날 늦은 새벽에
예비 관세사님들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하며

31기 관세사 이현규 드림